

2019년 10월 국내·외 위성 관련 산업동향

<목 차>

I. 위성관련 뉴스

1. 위성 통신 활용 시, 선박 연료 15% 절감 가능

(원문) <https://www.zdnet.co.kr/view/?no=20191001171548>

2. 英 민간 소형 로켓업체, 2022년 화성 탐사선 보내기로

(원문)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10/15/2019101500040.html

3. 스타링크 위성 3만기 더 발사, 지구 저궤도 교통대란 오나

(원문)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1910210600015

4. 우리별부터 차세대 소형위성까지, 30돌 맞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

(원문) <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PMURDE01>

II. 위성관련 보도자료

1.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(WRC-19) 한달간 개최

II. 보도자료

1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 한달간 개최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'19.10.28.

□ 한국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

-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(WRC-19,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)가 개최됨
 - WRC-19는 주파수 국제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 최고 의결회의로서, 4년마다 개최되어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림
 -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 조화는 중요하며, 특히 최근 신산업 확대에 의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WRC에서 주파수 분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- 우리나라는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(국방부)·산학연(삼성·KTsat·ETRI·TTA 등) 17개 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, 의제 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 - 그동안, 우리나라는 한국 준비단 구성·운영, 분야별 산업계 의견 수렴(19회), 국제 논의에 지속적 의견 개진 등을 통해 WRC-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음
- 이번 회의에서는 5세대(5G)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, 이동형위성지구국(ESIM) 주파수 분배, 무선랜주파수 공급,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(GMDSS)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* 개정 등에 대해 논의

-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의제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보이지만, 크게 이동통신 진영(미국·한국), 위성 진영(유럽·러시아)으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며,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과 전략적인 협력·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
-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추가 분배 등 주요 의제에 국내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, 주요국과 수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- 한국 대표단장인 박윤규 전과정책국장은 “2019 년은 5G 상용화 원년이자 WRC 가 개최되는, 전파분야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.” 라며, “국제논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음